

신년사

진실과 화해의 큰 길로 나아갑시다!

갑오년 새아침입니다.

올해는 자유와 변화, 그리고 희망의 푸른 말, 청마(靑馬)의 해입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푸른 말처럼 새해를 힘차게 열어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위하여, 화쟁과 중도의 가르침으로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다. 원효스님과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만델라 등 인류의 지성들이 이 길을 이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온 몸으로 보여준 지혜와 자비의 울림은 우리들 가슴 속에 큰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과 화해의 기운이 절실합니다. 옛 말씀에 바보 셋이라도 서로 모여서 의논하면 문수보살의 지혜가 나온다 했듯이, 서로 마음을 모아 지혜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나만의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햇볕과 이웃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있습니다. 불행한 이웃을 두고 내가 행복할 수 없으며, 나와 이웃이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올해는 현란함과 숫자로 이름 지어진 허명을 좇아 동분서주하기 보다는, 진실과 화해의 새 길을 여는데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읍시다. 온 국민의 뜻을 모아 천심인 민심을 형성하고, 합리적인 민심이 우리 사회의 공론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마당을 열어갑시다. 그 마당에서 진실과 화해의 물꼬를 내어, 국민 다수의 행복과 평화를 가져올 지혜로운 대안을 모색해 나갑시다.

맑은 기운, 밝은 기운이 가득한 새해가 떠올랐습니다.

아침 햇살 가득한 골목길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생동하고, 까치들이 멀리서 오는 손님을 먼저 맞이하느라 노래 소리가 높습니다. 반가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축원합니다.

불기2558(2014)년 갑오년 새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